

# '주 52시간 근무' 준비 안된 지역 경제계

### 내달 적용 광주·전남 201곳... 초과임금 등 대책 골머리 전남 버스업계 1년 유예 합의... 내년 최저임금도 관심집중

6월로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인건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급기야 버스업계는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을 사실상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오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남았는데 대책은 없고=지난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종업원 300인 이상 광주·전남 사업장 201곳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광주은행, 세방전자 등 108곳이, 전남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과 전남도교육청 등 93개소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노동자들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당장, 노선버스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도 버스업계는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면 전남지역 37개 버스업체에서 827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며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

임금 감축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

는 노조와 경영난을 감안하면 노선 폐지, 운행시간 단축,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버스사용자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일단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버스업계 뿐 아니라 기업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게 확대될 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 등 종합병원들도 주 12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근무 형태 변경과 추가 인원 투입에 따른 인건비 대책을 고민중이다.

삼성전자는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일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동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제계 최대 이수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기업 의견과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건의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견기업들 사이에서는 주 52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하락이 예상되자 장기숙련자가 이직하는데 따른 또 다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설명회에서 장기숙련자에 대한 급여 보존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촉각-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14일부터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4명)이 사퇴했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최대 21만 6000명의 노동자의 기대수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의 갈등도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3.01 (+13.98)	금리 (국고채 3년)	2.20 (0.00)
↑ 코스닥	879.66 (+5.44)	↓ 환율 (USD)	1077.70 (-3.20)



### 광주은행 여행스케치 적금 2700억 돌파

다음달까지 사은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015년 7월에 첫 선을 보인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이 누적 판매 5만 3000좌, 계약액 2700억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하나투어와의 제휴를 통해 여행 목적자금의 적금 수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은 휴가시즌을 앞두고 많은 고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은 6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월 단위로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가입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 이벤트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5명을 추첨해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200만원권(1명),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100만원권(2명), 제주도 특급호텔숙박권(3명), 여수엠블호텔숙박권(4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1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

# 건설업계 "SOC 예산 삭감은 국민 안전 위협... 정상화해야"

### 전국 22개 단체 7000여명 국회 앞 대국민호소대회



건설협회 전남도회를 비롯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22개 단체는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토목·건설 수역의 큰 축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삭감 위주의 공사원가 산정,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현장 공기 연장 및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다.

전남도 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22개 단체는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공사비 정상화'를 요청한 바 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김영구 회장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예산절감에 의한 공공 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 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당장, 지난해 22조 1000억원이던 정부의 SOC예산 규모는

올해 19조원으로 축소됐고 내년도도 17조 규모(정부 예산편성지침)로 줄어드는 등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삭감 위주의 공사원가 산정방식으로 건설업의 전체 영업 이익률은 최근 10년 간 10분의

1로 수직 낙했다.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있다는 게 건설협회 전남도회 설명이다.

건설인 7000여명은 이날 대회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과 국민 생활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건설공사 낙찰률 향상 ▲SOC 예산 확충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청년, 中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 중소벤처부 내달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시작된다.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

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낸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최소 각각 12만원과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평균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2018년도 광주문화신탁

# 예금특판 행사 + 행복이벤트

파워예탁금

# 2.5%

예금특판 1년

**행복이벤트 1등** **참여행권** 1인2매...1명

추첨: 2018년 8월 3일 |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7월 31일

발표: 2018년 8월 6일

2등 LG트롬건조기...2명 | 3등 다이슨 무선청소기...3명 | 4등 쿠쿠전기밥솥...10명 | 5등 테팔프라이팬...100명 | 6등 밀폐용기세트...300명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타기관 대출을 하나로 묶는 문화신탁 통합대출 서비스

<b>태양광발전소 대출(솔라론)</b> 시설자금대출 최대 80% 운영자금대출 최대 70% 대출기간 최대 20년	<b>건축시설자금대출</b> 건축비 최대 80% 까지 (표준단가표에 의한 건축비 내) 공정율에 의한 기성금 지급(직불)
<b>신용대출</b>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직장인   지영업 직장기준 신용대출, 골든큐 신용대출 등   - 6개월 평균 카드예금의 2배까지 가능   - 장입대출, 운영자금, 시설자금	<b>담보대출</b>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담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b>정부보증 햇살론대출</b>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b>경락잔금 대출</b> 법원 최초 감정평가액의 최대 8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